

## 피오나 래

Fiona Rae



백설공주는 자신의 세계에서 달을  
꺼내올린다, 2017, 캔버스에 유채,  
183x129.5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피오나 래

전시기간 : 2018년 11월 23일(금) - 2019년 1월 20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청담

출 품 작 : 회화 11점

### 담 당

조윤성 [cho@hakgojae.com](mailto:cho@hakgojae.com)

+822-720-1524~6

### 보도자료 문의

이지선 [jen.lee@hakgojae.com](mailto:jen.lee@hakgojae.com)

+822-3448-4575~6

## 1. 전시개요

학고재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학고재청담'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공간을 하나 더 마련했다. 국내외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전으로 2018년 11월 23일(금)부터 2019년 1월 20일(일)까지 피오나 래(Fiona Rae, b.1963, 홍콩 출생) 개인전 《피오나 래》를 연다. 이번 전시는 1988년 《프리즈(Freeze)》전을 통해 '영브리티시 아티스트(Young British Artist)'중 한 사람으로 데뷔하며 이름을 알렸던 작가 피오나 래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다. 학고재청담은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의 지난 5년간의 작품을 엄선해 전시함으로써 회화의 경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아온 피오나 래의 최근 작품과 국내 관람객이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개관전 《피오나 래》는 30여 년간 회화 작업을 해 온 작가의 뛰어난 색채감각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원숙한 붓터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흑백으로 그려진 작품부터 연보라색 안개 위로 부드러운 덩굴줄기가 뻗어 나오는 듯한 파스텔톤 채색 작품까지 다양하다. 이번 전시 작품은 모두 작가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작업한 최근작으로,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스크린처럼 캔버스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듯한 느낌이 특징이다. 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연구해온 독자적인 표현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왔다. 작가는 그동안 반짝이나 스텐실, 스프레이 페인트, 만화 속 캐릭터, 꽃과 별 문양 등 그동안 '훌륭한' 회화로서는 의심스럽게 여겨졌던 요소들을 캔버스 위로 대담하게 옮겨오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캔버스에서 뚜렷한 형상을 배제하고 형상이 뚜렷하지 않은 추상 회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현재 피오나 래는 '유동적이고 유려한(fluid and fluent)' 회화를 목표로, 밝은 색 배경에 흰색과 다른 색을 섞어 마치 빛이 뿜어 나오는 듯한 작업을 선보인다.

## 2. 작가소개

피오나 래는 1963년 홍콩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던 부친을 따라 어린 시절을 홍콩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보낸 뒤 1971년 영국으로 돌아가 정규 교육을 받았다. 1987년 골드스미스 대학교(Goldsmiths College) 회화과를 졸업한 이듬해,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가 기획한 전시이자 훗날 영국 현대미술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전시 《프리즈》에 참가하며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중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였고, 다음 해에는 영국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상 터너 상(Turner Prize) 후보에 선정되었다. 1993년에는 젊은 회화가들을 대상으로 한 오스트리아의 엘리에트 폰 카라얀 젊은 작가상(Eliette Von Karajan Prize)의 후보로도 지목되었다. 1997에는 몇몇 《프리즈》 출신 작가들과 사치 컬렉션으로 꾸려진 전시 《센세이션(Sensation)》에 참여했다. 이후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려온 래는 회화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을 지속해왔다.

'화가들의 화가'라 불리는 피오나 래는 2011년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 아카데미 대학(Royal Academy Schools) 회화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테이트(Tate)와는 레스토랑 및 테이트 멤버스 아티스트 커미션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영국에서 손꼽히는 예술가들만 초청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Arts)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 외, 카리 현대 미술관(님, 프랑스), 에슬 미술관(클로스터노이부르크, 오스트리아), 쿤스트뮤지엄 슈투트가르트(슈투트가르트, 독일), 쿤스트할레 바젤(바젤, 스위스)에서 전시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풍피 두센터(파리),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베를린), 테이트 컬렉션(영국), 허시혼 박물관 & 조각 공원, 스미스소니언(워싱턴 D.C.) 등 세계 우수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3. 전시주제

이번 전시는 1999년 일본 개인전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피오나 래의 개인전이자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다. 지난 30여 년간 회화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표현 방식을 스스로 혁신해온 작가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작가의 최근 연구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 온 피오나 래는 평생을 회화에 투신해 왔다. 과거의 그는 꽃이나 별 문양, 만화 캐릭터, 캘리그라피 등 진지한 회화 작품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요소들을 캔버스 위로 끌어와 주목을 받았다. 스텐실과 스프레이 페인트, 반짝이, 드리핑 기법(drips) 등도 실험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러한 점들은 물론, 자신의 장기이기도 했던 채색을 배제하고 붓 터치와 형상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본 전시는 래의 가장 최근 작품인 <옛날 옛적에 인어의 노래를 듣다(Once upon a time hears the sea-maid's music)>(2018)를 시작으로, 2014년 회색조의 작품부터 순서대로 전시함으로써 작가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흔적을 스스로 지우는 붓질과 비형상과 형상 사이에 걸친 듯한 형식이다. 특히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의 작품은 흑백의 기운생동한 붓질이 마치 화조도(花鳥圖)나 사군자화(四君子畵) 같기도 하고, 검은 배경색 위에 그어진 밝은 회색 선이 엑스레이 필름과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는 2016년부터는 화면에서 검은색을 몰아내며 마치 이전 시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회색의 사용을 줄여나가며 마침내 검은색과 회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파스텔톤의 안개 같은 추상 회화를 구사하기에 이른다.

### 스스로를 극복하는 흔적, 자신을 지우는 선과 그림에도 남겨진 선

피오나 래의 지워지는 선은 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이 <여인(Woman)> 시리즈를 작업할 때 보였던 형상과 추상 사이, 그리고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가 데 쿠닝의 드로잉을 빌려와 지운 작품 <지워진 데 쿠닝의 드로잉(Erased de Kooning Drawing)>(1953)을 연상시킨다. 래는 텅 빈 화면 위로 지워진 드로잉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작품에서 데 쿠닝의 명성과 그를 극복하려는 젊고 패기 넘치는 후배 작가 라우센버그가 동시에 보인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래는 라우센버그가 드로잉을 지우는 한 달 동안 데 쿠닝으로부터 작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지워진 드로잉에는 데 쿠닝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데, 이는 미술의 역사가 이전 시기의 것을 극복하며 진행되어 왔지만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이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완전한 삭제란 없음을 주지시킨다. 왕립 아카데미 대학에서 242년 만에 채용한 여성 최초의 회화과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지금도 종종 학교를 방문해 회화에 뜻을 둔 제자들을 만난다. 세대의 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젊은 작가들과의 교류는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 유동적이고 유려하게, 형상과 비형상 사이에서

피오나 래의 그리고 지우는 선은 화면을 구상과 비구상 사이로 이끄는 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미술사 속 인물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이다. 피오나 래는 피카소의 여러 후기 작품들이 칼이나 꽃, 끈으로 맨 부츠, 그리고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한 병사의 형상이 추상화 되어가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래의 회화가 보일 듯 말 듯 한 인물들이 왕관이나 구름, 활, 드레스, 신발, 모자, 별 등을 가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래는 서구의 미술사 속 인물들 외에도 2013년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본 중국 남송 말기의 화가 진용(陳容)의 두루마리 회화 <구룡도권(九龍圖卷)>에도 영향을 받았다. 래는 진용이 단지 몇 번의 붓질만으로 용이 파도와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을 그려낸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작업실에 그 그림을 실제 사이즈인 약 15미터로 프린트해 붙여 두었다.

또, 피오나 래는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살던 시절부터 동양화와 자수 등을 보아왔으며, 중국어에 능숙했던 부친의 서예 두루마리 등이 시각 경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업에서 자주 보이는 형광색이나 꽃, 별 등의 문양은 그가 어린 시절 아시아의 복잡한 거리나 시장에서 보았던 네온사인, 혹은 인도네시아의 열대 자연 풍경의 흔적이다. 아시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가는 영국으로 돌아와 정규 교육을 받았다. 최근작의 제목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구절이나 서구의 전형적인 동화 속 인물을 암시하는 것은 영국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이다.

## **연속성과 현재성**

피오나 래는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작업 방식에 규제를 걸었다 이를 깨뜨리며 성장해왔다. 미술의 역사가 선배 작가들을 극복하는 후배 작가들과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듯, 피오나 래의 작품세계 또한 이전 시기의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래는 자신의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특기였던 화사한 색채를 배제한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는 처음 《프리즈》전을 통해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한 사람으로 데뷔했던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회화 작업을 지속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유화라는 매체가 가진, 기름이 색소를 머금으며 내는 빛을 뿜는 듯한 효과에 매료되었다.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동기들이 대체로 매체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것과 달리 래는 오랫동안 회화에 천착해왔다. 회화가 '오래된' 매체가 아니냐는 질문에 래는 자신에게 있어 회화란 현재라고 말한다. 래의 채색은 유화 매체 특유의 불투명하고 때로는 탁한 느낌이 없다. 특히 최근작에서 보이는 수채화에 가까운 그의 채색은 유화의 물성마저 극복하려는 듯 하다. 이러한 채색 기법으로 그는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주로 머무는 매체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스크린과 같은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캔버스로 불러온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동시대적 요소를 회화에 옮기며 마침내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 4. 주요작품



옛날 옛적에 인어의 노래를 듣다, 2018, 캔버스에 유채,  
129.5x183cm

이 작품은 숨어있는 형상이 연보랏빛 구름에서 나타날 듯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형상과 비형상 사이, 뚜렷한 색상과 하얀색 배경 사이로 관람객을 이끈다.



인물 1h, 2014,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릭,  
183x129.5cm

피오나 래는 자신이 사용하는 다양한 색채와 캔버스 위 요소들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현재의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작가다. 과거의 그는 종종 밝은 색채의 컬러나 이미지, 혹은 심벌 등 뜻밖의 요소들을 작품 내 삽입하곤 했다. 작가는 '닥터 수스(Dr. Seuss)' 동화책, 찰스 프레저(Charles Fréger)의 사진, 그리고 진용의 두루마리 회화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피오나 래는 이 시리즈를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표현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물 2 e, 2016, 캔버스에 유채, 183x129.5cm

이 작업을 통해 작가는 흑백의 연작 이후 색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골몰한다. 이 작품은 작가가 빛을 뿜어내는 채색법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관람객은 이 작품에서 회색과 검은색이 섞여 탁하게 되지 않고 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백설공주는 자신의 세계에서 달을 꺼내올린다, 2017,  
캔버스에 유채, 183x129.5cm

피오나 래는 이 작품을 통해 검은색이나 회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하얀색의 배경에 칠해진 색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이전 시기의 작품보다 밝은 배경색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작가가 캔버스 위에서 쉬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색의 사용, 구름과 같은 부드러운 색으로부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적인 형상 암시 등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피오나 래: 풀 스윙

길다 윌리엄스

훗날 피오나 래의 독자적인 화업을 돌이켜보는 때가 온다면, 2014년부터 2018년이 하이라이트로 기억될 것이다. 피오나 래 작가는 2017-2018년 사이의 최근작에서 보인 붓으로 쓰기, 섞기, 빛과 색의 아름다운 조화와 더불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선보인 뿌연 흑백 작품을 통해 한층 개선된 널찍한 화면구성, 명확도, 그리고 기술적 숙련도를 발휘하고 있다. 피오나 래의 역동적인 추상화는 전위적인 영국의 젊은 예술가 그룹,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Young British Artists)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역사적인 전시 《프리즈(Freeze)》(1988, 런던)에 참여한 이래 세간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몇 년 후, 작가는 터너상(Turner Prize)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1년 여성 최초로 영국 왕립 아카데미 대학(Royal Academy Schools) 회화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초청되는 협회인 왕립 미술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Arts)에도 2002년 이름을 올렸다.

독자적인 작업 기술과 무한한 상상력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화가들의 화가'라는 칭송을 받아온 피오나 래는 '진지한' 회화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데에 헌신해왔다. 작가는 세월을 걸쳐 꽃무늬, 밝은 형광색,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만화 속 등장인물, 별 등 예술적으로 의심스러운 요소들을 섬세한 필치로 캔버스에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막대한 위험을 무릅쓰는 작업을 해왔다. 래는 우중충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무채색의 크리스토퍼 울(Christopher Wool)과 같은 추상화가들이 으레 지닌, 지나칠 정도의 진지함에 대해 무엇이 '훌륭한' 회화에 있어 허용 가능한 것인지 질문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한다. 만약 래의 많은 작품에서 보여지는, 디즈니에서 볼 법한 색감이나 부드럽게 두들긴 붓자국들이 회화적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규율은 누가 정하며, 작가가 그것을 깨고 성숙한 회화의 요소와 뒤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피오나 래는 능숙한 붓질과 섬세하게 균형 잡힌 구도 등 훌륭한 회화적 요소와 서예적 곡선, 밝은 형광색, 지두화법(指頭畫法), 혹은 점선과 같은 의외의 요소들을 동시에 가진다. 피오나 래의 회화에 대한 손꼽히는 기술과 장기간의 작업기간은 비판을 무력화시킨다. 피오나 래는 테이트(영국), 허쉬혼 박물관(워싱턴 D.C.)의 주요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리즈 아트 갤러리(리즈, 영국)에서 주요 회고전을 갖는 등, 낙서에서부터 미술관급의 작품까지 작가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작업 스타일을 통해 회화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알아보는 수많은 큐레이터들과 컬렉터들의 눈을 부시게 했다. 이는 피오나 래가 오늘날 영국의 뛰어난 회화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반증한다.

겹겹이 쌓인 거미줄, 낙서,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무늬, 트위니 카툰 이미지들, 반짝이, 그리고 그래픽 등을 담은 복잡한 회화를 몇 십 년 동안 선보였던 래는 근래에 들어서 화면에 은은한 색상을 대대적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캔버스 내에서 숨길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킨다. 이는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등 저명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절정에 이르렀다 믿었을 때 캔버스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한 것과 같다. 피오나 래의 최근작들은 거장의 자신감과 대담함을 표출한다.

최근에 선보인 대형 회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Sleeping Beauty will hum about mine ears)>(2017)와 <백설공주는 자신의 세계에서 달을 꺼내 올린다(Snow White lifts the moon out of her sphere)>(2017)에서 작가는 검정색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유로운 붓질의 밝은 마젠타, 옅고 화살 같은 선의 주황, 옅은 노랑과 아쿠아와 같은 파스텔톤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한다. 대형 캔버스에 가로로 작업한 <옛날 옛적에 인어의 노래를 듣다(Once upon a time hears the sea-maid's music)>(2018)는 연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흐린 회색으로 물든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Giovanni Battista Tiepolo)풍 하늘에 커다란 회청색 구름이 흐르는 장면이 담긴 것처럼 보인다. 이보다 채도가 높은 <인물 2e(Figure 2e)>(2016)에는 회색의 바다 위에 산호가 부드럽게 파도를 타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은 2017 년에 보였던 대담한 색상을 사용한 작품과 그에 앞선 <인물 1h(Figure 1h)>(2014)에서 보이는 뿌연 회색조 작품 사이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보인다. <인물 1h(Figure 1h)>에서 작가의 절대적 상상이 검은색, 흰색, 그리고 무한한 회색만으로 표현되어 또 다른 회화적 규율을 보여준다. 그 결과 분필 같은 자국, 눈부실 정도로 흰 폭발, 그리고 사방으로 불뚝을 튀기며 피어 오르는 연기 등이 그려졌다. 이를 통해 래는 초기 작업에서 보였던 스텐실, 스티커 채색, 그리고 드리핑(drip) 등을 포함한 독특한 작업방식 중에서 유화 물감을 붓에 찍어 손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그리고 보이는 바와 같이 작가의 유화 구사력은 매우 환상적이다.

## 유화의 개론 (Oil Painting 101)

피오나 래의 회화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전에 유화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유화물감을 사용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고집스런 매체는 바를 때 불투명하고 균일하게 깔림으로써 마치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는 래가 시사하는 가볍고, 겹겹의 빛나는 층이 쌓인 듯한 표현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제대로 섞지 않으면 보색을 섞었을 때에는 '연못 위에 뜬 해감'이나 '늪' 이외의 표현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흠탕물 같은 갈색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는 작가의 푸른 봄에 새싹이 뻗어 올라가는 듯한 가볍고 부드러운 푸른색, 찬란하게 퍼지는 분홍색, 혹은 길고 깔끔하게 나아가는 밝은 초록색과는 정반대의 느낌이다. 래의 캔버스는 마치 투명하게 여러 겹으로 물든 대형 수채화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 '유화'임을 잊게 된다. 그는 축축해 보이는 화면 위에 잉크자국 같은 과감한 붓자국을 남긴다. 예를 들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Sleeping Beauty will hum about mine ears)>의 중앙 부근의 붓보다는 펜으로 그려진 것 같은 청록색 지그재그 선은 일종의 '울타리'가 된다. <인물 1h(Figure 1h)> 같은 회색조 작품들을 보는 이들은 몇몇 자국들이 분필이나 파스텔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자국들은 에어브러시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터뜨리듯 뿌린 흰 자국 같다고 할 것이다. 래는 <인물 1h(Figure 1h)>에 대해 얘기할 때,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관에서 감명 깊게 본 중국 남송 말기 사대부 화가 진용(陳容)의 <구룡도권(九龍圖卷)>을 언급한다. 작가는 오로지 먹과 약간의 붉은 안료만을 이용해 "아홉 마리의 용과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을 그려낸 이 작품을 보고 "나도 검은색, 흰색, 그리고 몇 가지의 회색만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라고 술회했다. 작가는 이를 <인물 1h(Figure 1h)>에서 충분히 실현하는데,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밤을 채우는 신비로운 소용돌이와 폭죽의 반짝임이 보름달 아래에서 터지는 장면을 오직 회색조를 사용해 그려냈다.

우리는 래의 화면에서 주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정교한 채색에 주로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인물 2e(Figure 2e)> 상단에 다색의 고리와 기둥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데 이는 새들이 빨간색, 초록색의 깃털 사이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붓질이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Sleeping Beauty will hum about mine ears)> 중앙에 그려진 크고 부드러운 푸른 바다색의 파도가 넓은 붓을 섬세하게 다루는 작가의 숙련된 솜씨만이 그려낼 수 있는 다양한 연보라색 거대한 별 무늬를 맴도는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 피오나 래의 회화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위에 언급된 모습들만이 아니다. 그의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다른 부분은 캔버스 전체를 채우고 있는 미묘한 색상의 변화다. 래의 붓질은 형상에서 배경으로 부드럽게 녹아 들어간다. 그 예로 <백설공주는 자신의 세계에서 달을 꺼내 올린다(Snow White lifts the moon out of her sphere)> 중심을 미끄러지듯이 가로지르는 선명한 녹색 선을 들어볼 수 있다. 이 녹색 선은 위에서 아래로 뱀이 누비듯 떨어지고 넓어졌다가 문득 나타나는 붉은 사다리 구조물 뒤로 사라지고, 결국 좌측 하단에 이르러서는 가느다란 초록색 선들로 분홍색을 만나 흐려진다. 동시에 번개를 머금은 폭풍 구름이 화면의 아래쪽을 향하고 또렷한 노란색에서 진한 푸른색으로 바뀌어간다. 래는 "모서리가 만나고 미끄러지게끔 붓질을 더하고 섞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유동적이고 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작가가 갈망하는 이런 연결성(seamlessness)은 작품 전면에서 볼 수 있다. <Figure 2e>의



중앙에는 조심스럽게 한 개의 붓으로 그려졌지만 섞이지 않은 마젠타와 노란색 획들이 풍성한 에메랄드 빛 물마루를 만나 다시 부서진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Sleeping Beauty will hum about mine ears)>에서는 연보랏빛 안개가 푸른색을 만나 사라졌다가 분홍색으로, 노랑색으로, 그리고 다시 환한 산호색으로 바뀐다. 이러한 곡예 같은 색채 전환은 으레 덜 숙련된 작가가 빠지기 마련인 진흙 웅덩이 같은 색의 혼돈 속으로 넘어지는 법이 없다.

## 플리커 (Flickr)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피오나 래가 이처럼 밝고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냄으로써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빛과 부유하는 듯한 다층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작가의 캔버스는 자유롭게 부유하고 반투명한 조형요소들이 흐릿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바뀌어 가는 등 특정한 형태 없이 공존하는 디지털 스크린과 닮아있다. 미술비평가들은 우리가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화면이 바뀌는 디지털 스크린처럼, 21 세기 작가들이 색감이나 빛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물감의 물성을 두껍고 풍부하게 풀어내는 경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술사가 헬렌 몰스워스(Helen Molesworth)는 루크 튀이만(Luc Tuymans)이 작품 속에서 내부로부터 빛을 분출하거나 환영처럼 보이는 형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튀이만은 <거북이(Turtle)>(2007)를 그리기 위해 작은 전구들로 덮여있는 디즈니 퍼레이드용 대형 풍선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소재로 삼았다. 피오나 래의 회화 또한 설명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부로부터 빛을 분출한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Sleeping Beauty will hum about mine ears)> 우측 하단에 있는 신성해 보이기 까지 하는 금빛 안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래의 회화는 전원이 연결되어 화면이 빛을 내며 살아있는 것 같다. 여기서 래의 붓질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때로는 불꽃처럼 튀면서 배경 속에 백열전구가 켜진 것처럼 빛나 게 한다. 미술사가 루크 스미드(Luke Smythe)는 「물감 vs. 픽셀: 디지털 이미지 시대의 회화(Pigment vs. Pixel: Painting in an Era of Light-Based Images)」(2012)에서 오늘날의 작가들은 물감의 풍부한 물성을 이용해 우리의 모든 시각경험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가상의 풍경 속 촉각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스크린을 모방하는 듯한 피오나 래의 화면은 역사와 색채가 풍부한 유화물감의 물성이라는 디지털과는 매우 거리가 멀고 살아 숨쉬는 듯한 재료로 그려진다.

## 꼬여버린 자매들 (Twisted Sister)

1950 년대의 추상화가 세대 중 피오나 래의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 작가는 아마도 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일 것이다. 피오나 래는 데 쿠닝의 작품 중 <여인(Woman)> 시리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바 있다. 래는 그로부터 “단도직입적인 그리기, 붓을 힘있고 대담하게 놀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워나가며 정교한 화면을 창조하는 것”을 배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작업과정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데

쿠닝의 작품처럼 래의 세로 방향 화면들은 하나의 이미지가 큰 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미하게 보이는 '인물'은 비틀어지거나 사라지고, 화면을 크게 채웠다가 전체적으로 스며든다. 래의 작품에서 보이는 보일 듯 말 듯한 '인물들'은 작가가 명명한 "왕관이나 구름을 쓰고, 활을 메거나 드레스를 입고,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깃털이나 별을 가진, 오직 물감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만의 동화 속 인물들"이 된다.

래의 회화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위와 같은 동화 속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Sleeping Beauty will hum about mine ears)>에서 머리 위로 나풀거리는 파란 날갯짓의 후광 아래 중앙으로부터 양 옆의 초록 넝쿨과 파란색과 보라색 줄기로 이어지는 팔을 가진,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며 무중력 상태의 분홍색 치맛자락을 훑날리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찾아 볼 수 있다. 데 쿠닝이 말했듯, "그림 속 인물은 기이한 기적처럼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래의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길다란 인물들(큰 그림이 서 있는 인물을 담고 있다면 작은 그림들은 인물의 얼굴을 담고 있을 것이다)은 비슷하게 신비롭고 마술적인, '미묘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데 쿠닝 회화 속 덩수룩한 여인들은 닥터 수스(Dr. Seuss)의 모자 쓴 고양이(Cat in the Hat)가 가지고 있는 곡선들, 디즈니 공주가 입는 야회복의 선명한 윤곽, 프라다(Prada) 실크 스커트에 수 놓여있는 소용돌이 무늬, 그리고 피카소 그림 속 지나치게 차려 입은 한 병사의 전투화 장식과 합쳐진다. 불현듯 떠오르는 또 다른 미술사 속 인물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Honoré Fragonard)다. 그의 <그네(The Swing)>(1767)에는 천상의 빛을 받아 유혹적으로 물결치는 분홍색, 신비한 초록색과 파란색이 가득한 무중력 상태의 비밀 정원이 있다. 프라고나르의 색감과 빛나는 색채의 향연, 그리고 여인의 발에서 벗겨져 공중으로 날아가는 신발처럼 문자 그대로 '벗겨지는' 모습에서 래를 떠올리게 된다.

## 프리 폴 (Freefall)

그러나 프라고나르는 위험한 먼 친척이다. 그의 추파를 던지는 듯한, 그러나 기술적으로 완벽한 회화들은 오랫동안 금지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미하고 '말괄량이'스러운 그림 속 장난치는 귀족들이 갈 곳은 단두대뿐이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가 18 세기 작가들이 경솔함을 버리고 "스파르타인들이 말하듯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달리 말해 작가들은 규율, 단호함, 그리고 격렬함과 같은 '남성적인' 특징만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남성답지 못한(effeminate)' 것에 대한 디드로의 두려움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왔다.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은 분명 테스토스테론에 빠져 있었다.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이 캔버스 위에서 '거세하지 않은 그대로의(non-castrated)' 감정표현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고, 평론가 매니 파버(Manny Farber)는 페인트를 툭툭 떨어뜨리는 폴록의 '정력적인(virile)' 행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래에게 있어 분홍색을 비롯한 파스텔톤, 가느다란 선, 섬세하게 겹쳐진 옅은 색들, 부유하며 춤추듯 돌아가는 구성과 같은 명확하다 못해 진부하기 까지 한 '여성적인' 신호들을 마음껏 풀어놓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인물 2e(Figure 2e)> 상단에 있는 반짝거리는 별은 요술봉일까? 디즈니 공주와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한데 합친 작품 제목이나 작가가 인정한 '여자들의 게임'인

캔디 크러쉬 사가(Candy Crush Saga) 속 색채에 대한 매료는 말할 것도 없다. (래는 비디오 게임은 하지 않으나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훌륭한 그림이나 ‘배짱이 두둑한’ 회화와 남성성의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도 매우 건재하다. 앞서 언급한 빛을 그린 동시대 작가들에 대한 글에서 루크 스미드(Luke Smythe)는 피오나 래를 비롯한 줄리 머레투(Julie Mehretu), 로라 오웬스(Laura Owens), 에이미 실만(Amy Sillman), 브라차 L. 에팅거(Bracha L. Ettinger) 등 여성작가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루크 튀이만(Luc Tuymans), 알베르트 올렌(Albert Oehlen), 파비안 마르카치오(Fabian Marcaccio), 크리스토퍼 울(Christopher Wool)과 웨이드 기튼(Wade Guyton) 등 남성 작가만을 논한다. (유일하게 스미드의 글에 언급된 여성들은 알베르트 올렌(Albert Oehlen)과 조나단 메세(Jonathan Meese)가 2004 년에 그린 머리가 없고 웃옷을 벗어 거대한 가슴을 노출한 채 공상 속 상상의 인물로 존재하는 한 쌍의 인물들뿐이다.)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저항과 완전히 반어적이지만은 않은, 분명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여성성의 기호들의 사용은 ‘진중한’ 회화에서 배제된 것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편견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질문하는 작가의 가장 대담한 면모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최근 사이 톰블리(Cy Twombly)에 대한 글을 쓰며 피오나 래 작품의 표층도 묘사할 수 있는 작가의 ‘흔들리는 오점들, 희미한 배경 위의 미약한 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바르트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의미와 죽음의 심연으로 빠져버리는 것”에 대한 지적 두려움에 빗대 톰블리의 회화 속에서 드러나는 연약함을 논하고 있다. 추상화는 이와 같은 무의미, 곧 작가가 채우지 못한 문자 그대로의 공허와 가장 숭고한 시각경험 사이에서 시계추가 왔다갔다하듯 난제에 영원히 빠져있을 것이다. 래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해체하고 돌이키며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무척 진지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피오나 래의 확장적이고 활기 넘치는 화면들은 시각, 의미 그리고 즐거움이 동시에 도약하는 지점을 열기 위해 말 그대로 작가가 ‘해체’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 실험하는 듯 하다.

## 6. 작가약력

|                   |                                                    |
|-------------------|----------------------------------------------------|
| 1963              | 홍콩 출생                                              |
| 1983-84           | 크로이던 예술대학 졸업                                       |
| 1984-87           | 골드스미스 대학 졸업                                        |
| 1991              | 터너상 후보, 테이트 브리튼, 런던                                |
| 1993              | 엘리에트 폰 카라얀 젊은 작가상 후보, 오스트리아                        |
| 2002              | 왕립 미술 아카데미 선출, 런던                                  |
| 2002-05           | 새도우랜드, 테이트 모던 레스토랑 커미션, 런던                         |
| 2003              | 시그널, 공공 예술 프로그램, BBC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런던                |
| 2005              | 마스터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틀랜틱 센터 포 아트, 뉴스머나비치, 미국     |
| 2005-09           | 테이트 아티스트 트러스티 임명, 런던                               |
| 2007              | 찰스 웰러스톤상 후보, 제239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
| 2010              | 초대 큐레이터, 제242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
| 2011-13           | 테이트 멤버스 아티스트 위원회, 테이트, 영국                          |
| 2011-15           | 왕립 아카데미 대학 회화 교수 임명, 런던                            |
| 2015              | 명예 펠로우십 수상,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 런던                       |
| 현재 런던에서 거주 및 작업 중 |                                                    |

### 개인전

|             |                                                                                                                               |
|-------------|-------------------------------------------------------------------------------------------------------------------------------|
| <b>2018</b> | <b>학교재청담, 서울</b><br>부흐만 갤러리, 베를린                                                                                              |
| 2017        | 부흐만 갤러리, 루가노, 스위스                                                                                                             |
| 2016        | 부흐만 갤러리, 베를린                                                                                                                  |
| 2015        |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
| 2014        | 피오나 래: 드로잉, 부흐만 박스, 부흐만 갤러리, 베를린<br>페인터, 페인터: 댄 퍼펙트, 피오나 래, 노팅엄 성 미술관, 노팅엄, 영국;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
| 2013        | 피오나 래: 뉴 페인팅,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br>피오나 래: 뉴 페인팅,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br>피오나 래: 아마도 우리는 다음 세기에 달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타우너 아트 갤러리, 이스트본, 영국 |
| 2012        | 피오나 래: 아마도 우리는 다음 세기에 달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리즈 미술관, 리즈, 영국;<br>뉴 아트 갤러리 월솔, 월솔, 영국                                                  |
| 2011        | 부흐만 갤러리, 베를린                                                                                                                  |
| 2010        | 피오나 래: 특별한 두려움!, 페이스 갤러리, 뉴욕                                                                                                  |
| 2009        | 피오나 래: 달리고 달릴 때 행복은 더 가까이에,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

- 2008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 2006 피오나 래: 젊고 절망적인 그대여, 페이스 갤러리, 뉴욕
- 2005 피오나 래: 그로토, 부흐만 갤러리, 쾰른, 독일
- 2004 피오나 래: 스웨그,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 2003 피오나 래: 홍콩 garden,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 2002 피오나 래, 카리 현대 미술관, 님, 프랑스
- 2001 피오나 래: 뉴 페인팅, 뫼 반 오르수우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 2000 부흐만 갤러리, 쾰른, 독일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피그-1, 프래자일 하우스, 런던
- 1999 코지오구라 갤러리, 나고야, 일본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뉴욕
- 1997 피오나 래 (게리 홈과 함께), 사치갤러리, 런던  
 피오나 래: 뉴 페인팅, 로마 영국학교, 로마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뉴욕
- 1996 컨템포러리 파인 아트, 베를린
- 1995 워딩턴 갤러리, 런던
- 1994 존 굿 갤러리, 뉴욕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 1993 현대미술학회, 런던
- 1992 쿤스트할레 바젤, 바젤, 스위스
- 1991 워딩턴 갤러리, 런던
- 1990 피에르 베르나르 갤러리, 니스, 프랑스  
 서드아이센터, 글래스고, 영국

### 단체전

- 2018 콘텐츠 이즈 어 글림스, 에프레미디스 갤러리, 베를린  
 제250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표면 작업,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 런던  
 섬뜩한 악의적 비명, 아터클리프™, 세필드, 영국  
 저우드 컬렉션 25주년, 저우드 갤러리, 헤이스팅스, 영국
- 2017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부흐만 갤러리, 베를린  
 제249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원해! 원해!: 예술과 테크놀러지, 버밍엄 미술관, 버밍엄, 영국  
 단체전, 파크 하얏트 파리 방돔, 파리
- 2016 그리다, 부흐만 갤러리, 베를린  
 비구상 - 복권할 것인가?, 성 안드레 수도원, 메이막 아트센터, 메이막, 프랑스

- 세계의 최고로 돌아가다, 프랑스 현대미술 지방재단 오베르뉴, 클레르몽페랑, 프랑스  
 컬렉션에 대하여, 빌라 베르나스코니 예술 센터, 랑시, 스위스  
 제248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상아탑의 역설: 놀린다&호세 리마의 회화 컬렉션의 회화적 요소, 올리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상 주앙 다 마데이라, 포르투갈  
 색을 자제하라!, 텅스 갤러리, 런던  
 붉은 빛나무로 무엇을 하는가(파블로 네루다),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 2015 제247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대학을 상상하다: 워릭 대학교 아트 컬렉션 50년, 미드 갤러리, 워릭아트센터, 코번트리, 영국  
 풍요로운 삶. 작품 수집하기, 로슈슈아르 현대미술관, 오토비엔, 프랑스  
 라 콜렉시온: 마드리드 최초의 배리 재단 현대 회화 컬렉션, 센트로센트로, 마드리드
- 2014 세계 여행자, 예술 미술관, 클로스터노이부르크, 오스트리아  
 단체전, 워딩턴 커스톳 갤러리, 런던  
 오늘 여기에..., OSO아트 센터, 런던  
 예언적 도표 II, 세이모어 갤러리, 텍시도 파크, 미국  
 달리고 달릴 때 행복은 더 가까이, 호텔 보브랭, 파리  
 나쁜 소년!, 뉴 아트 프로젝트, 런던  
 세계 사이에서, 갤러리 이사, 뭄바이, 인도  
 제246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디테일), H-프로젝트 스페이스, 방콕; 트랜지션 갤러리, 런던; 어서 갤러리, 링컨, 영국  
 국경 내에 또는 너머: 포르투갈은행 유럽투자은행 소장품, 포르투갈은행, 리스본
- 2013 플로렌스&다니엘 켈랑 기부컬렉션: 파리 국립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파리  
 아트 브리타니아, 마돈나 빌딩, 마이애미, 미국  
 시작하자, 파트2: 볼룸, 카스텐 슈베르트, 런던  
 씬머 살롱 쇼, 라이온 & 램 갤러리, 런던
- 2012 예언적 도표, 조지 앤 요르겐, 런던  
 만남: 아시아의 왕립 아카데미, 싱가포르 현대미술학회, 싱가포르; 카타라 문화 마을, 도하  
 오늘의 왕립 미술원 회원들,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제244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런던 12, 시티 갤러리 프라하, 스톤 벨 하우스, 프라하  
 아웃사이드 인,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벽을 넘어서,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브뤼셀
- 2011 마르크스 컬렉션, 북미와 유럽의 회화, 아틀라스 스투키, 우치, 폴란드; 슈체친국립박물관, 슈체친,  
 폴란드  
 소란 피우기,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국제 현대 회화 소장품, 배리 재단, 라 코루냐, 스페인  
 발굴되다, 워튼 하우스, 런던  
 국경 내에 또는 너머, 비잔티움과 그리스도교 박물관, 아테네  
 비매품, 파사주 드 레츠, 파리

- 제243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 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컬렉션: 25년과 한번의 여름, 로슈슈아르 현대미술관, 로슈슈아르, 프랑스  
 영화와 예술 사이, 쿤스트할레 엠덴, 엠덴, 독일; 독일 키네마테크 - 필름 앤 텔레비전 박물관, 베를린
- 2010 뉴 아트 나우, 버밍엄 미술관, 버밍엄, 영국  
 팜 페인팅, 부흐만 갤러리, 베를린  
 아트: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기획, 하스 앤 푸크스 갤러리, 베를린  
 ...더욱 그렇다, 쿤스트할레 괴핑겐, 독일  
 바벨, 오베르뉴 지역자치단체 현대미술 컬렉션 운용기관, 클레르몽페랑, 프랑스  
 40, 텍사스 갤러리, 휴스턴, 미국  
 제242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 전시, 림,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페이스의 50년, 페이스 갤러리, 뉴욕
- 2009 플라스틱 컬처: 1986-2008년 팜의 유산, 해리스 박물관 및 미술관, 프레스턴, 영국; 더 익스체인지, 펜젠스, 영국; 브래드퍼드 1 갤러리, 브래드퍼스, 영국  
 어떤 것들에 착수하다: 회화 그리고 계시, 리즈 미술관, 리즈, 영국  
 복화술,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어제와 내일 이전에; 혹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 유니온 페노사 현대미술관, 라 코루냐, 스페인  
 카이로의 장미꽃, 오리악 고고미술박물관, 오리악, 프랑스  
 분류: 테이트 컬렉션 속 영국 현대미술, 테이트 브리튼, 런던  
 젊은이의 양지,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 2008 동시대 판화와 드로잉, 허버트 F. 존슨미술관, 코넬대학교, 이타카, 미국  
 페이스동물원, 페이스프린트, 뉴욕  
 수장고1 에서 나오다: 컬렉션에서 선택된 그림, 그랑 뒤 장 현대 미술관, 룩셈부르크  
 사적인 열정, 대중적인 비전, 비고 현대미술관, 비고, 스페인  
 썸머쇼,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프리즈 20, 호스피탈 클럽, 런던  
 그룹쇼,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브뤼셀
- 2007 재설정: 마르크스 컬렉션,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 베를린  
 황혼의 사색, 윈 인디 아더, 런던  
 쿤스트할레 만하임100년, 만하임 쿤스트할레, 만하임, 독일  
 아웃 오브 아트: 에르네스토 에스포지토 컬렉션, 쌍트르파스퀴아트 박물관, 빌, 스위스  
 제239회 왕립 미술 아카데미 여름전시,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 2006 그들의 시간으로부터 (2) 프랑스 현대 미술과 소장품, 그르노블 미술관, 그르노블, 프랑스  
 픽토그램: 기호의 외로움, 쿤스트뮤지엄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독일  
 픽션 @ 러브 / 영원한 청춘의 땅, 현대미술관, 상하이; 픽션 @ 러브 / 반짝이는 별들, 번드 18 크리에이티브센터, 상하이; 픽션 @ 러브 / 현대미술의 울트라 뉴 비전,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풀하우스: 컬렉션의 얼굴들, 만하임쿤스트할레, 만하임, 독일  
 가을의... 온천, 크린징거 갤러리, 빈  
 VIP III: 추상화의 아레나, 모르스브로이 박물관, 레버쿠젠, 독일
- 2005 계시: 예술원 컬렉션에서 영국 예술을 되돌아보다, 라인 미술관, 뉴캐슬 어폰타인, 영국  
 바로크와 네오 바로크 / 아름다움의 지옥, 도무스 아트리움02, 살라망카, 스페인

- 색과 여행, 퀸스틀러하우스 팔레 트룬 앤 탁시스, 브레겐츠, 오스트리아; 라팅겐 박물관, 라팅겐, 독일
- 로리 피터스 로디어 컬렉션, 레너드 펄스타인 갤러리, 드렉셀대학교, 필라델피아, 미국
- 꽃 회화, 예술가: 낙원의 정원에서 플리블루머에 이르기까지, 모르스브로이히 현대미술관, 레버쿠젠, 독일
- 2004 평범한 주문,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직접적인 회화 - 신미술관IV, 만하임콘스트할레, 만하임, 독일  
 바빌로니아 증후군, 빌라 뒤 파르크 현대미술관, 안마스, 프랑스  
 파라노말, 에어로플라스틱 컨템포러리, 브뤼셀  
 새로운 공간의 예술, 워커 미술관, 리버풀, 영국
- 2003 서머 아이즈/서머라즈, 잔 와이너 갤러리, 캔자스시티, 미국  
 말하는 미술: 새로운 예술의 글과 그림, 모르스브로이히 현대미술관, 레버쿠젠, 독일  
 그림 그리기: 디지털 시대의 그림 및 매체, 쿤스트뮤지엄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독일  
 회화: 아르투로 헤레라, 데니스 홀링스워스, 피오나 래, 후안 유슬레, 부흐만 갤러리, 쾰른, 독일  
 개관전,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 런던  
 새로운 추상화 / 지금의 추상화, 모르스브로이히 현대미술관, 레버쿠젠, 독일
- 2002 더 큰 스피래시: 1960-2003년 테이트의 영국 예술, 루카스 노게이라 갈세즈 파빌리온, 상 파울루  
 로완 컬렉션: 현대 영국과 아일랜드 예술, 아일랜드현대미술관, 더블린  
 그리다, 충동 또는 방법, 클로아트 갤러리, 에콜 레오폴리 데 보자르 예술, 렌, 프랑스
- 2001 아트룸 / 컬렉션룸, 쿤스트 뮤지엄 장크트 갈렌, 장크트갈렌, 스위스  
 하이브리드: 국제 현대회화, 테이트리버풀, 리버풀, 영국  
 워스 온 페이퍼,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뉴욕
- 2000 컬렉션의 양상, 컨템포러리 아트 컬렉션, 마드리드  
 현대 회화, 에디션 쿤스탄델 갤러리, 에센, 독일
- 1999 유럽: 회화의 다른 관점, 미케티 박물관, 프랑카빌라 알 마레, 이탈리아  
 컬러 미 블라인드! 컴퓨터게임과 코믹스 시대의 회화, 뷔르템베르크 미술협회, 슈투트가르트, 독일;  
 하버캄프 시립 전시장, 뮌스터, 독일; 던디 현대미술관, 던디, 영국  
 '45-99: 영국 회화 및 조각의 개인적인 시선, 캐틀스 야드 갤러리, 케임브리지, 영국;  
 더 시티 갤러리, 레스터, 영국  
 화해: 엘리자베스 쿠퍼, 스티븐 데이비스, 피오나 래, 후안 유슬레, DC 무어 갤러리, 뉴욕  
 센세이션: 사치 컬렉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브룩클린 미술관, 뉴욕
- 1998 개관전,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뉴욕  
 영국 맥시멈 다이버시티, 크린징거 갤러리, 빈; 예술학교 아뜰리에 하우스, 빈  
 2000년까지,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센세이션: 사치 컬렉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 베를린
- 1997 비전에 대하여: 1990 년대의 새로운 영국회화, 라이팅 미술관, 뉴캐슬 어폰타인, 영국  
 보물섬, 칼루스트 굴베키안 재단, 리스본  
 대립, 나탈리 오바디아 갤러리, 파리  
 이안 다벤포트,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세베디 존스, 마이클 랜디, 피오나 래, 워딩턴 갤러리, 런던  
 회화와 조각, 루링 어거스틴 갤러리, 뉴욕  
 비전에 대하여: 1990 년대의 새로운 영국회화, 프룻마켓 갤러리, 에든버러, 영국; 울지 아트 갤러리,  
 크라이스트처치 맨션, 입스위치, 영국  
 센세이션: 사치 컬렉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 1996 비전에 대하여: 1990 년대의 새로운 영국회화, 모던 아트 옥스퍼드, 옥스퍼드, 영국  
 새로운 추상화, 레이나소피아 국립미술관, 마드리드; 벨라스케스궁전, 마드리드; 빌레펠트  
 쿤스트할레, 빌레펠트, 독일;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 1995 추상화 다시 보기: 납치된 이미지, 마쉬 아트 갤러리, 버지니아대학교, 리치먼드, 미국  
 여기서부터, 워딩턴 갤러리, 런던; 카스텐 슈베르트, 런던  
 그림. 여섯 개의 이미지 - 여섯 개의 포지션, 부크단 앤 카이마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표의 한계: 회화의 가능성, 로슈슈아르 현대미술관, 로슈슈아르, 프랑스
- 1994 기회, 선택 그리고 아이러니, 토드 갤러리, 런던; 존 헨서드 갤러리, 사우샘프턴, 영국  
 언바운드: 회화의 가능성,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지금 바로 여기에,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예술위원회 컬렉션의 새로운 회화, 더 오리엘 갤러리, 더블린  
 새로운 목소리들: 영국공영컬렉션 신작, 빌바오 미술관, 빌바오, 스페인; 산타 모니카 현대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갈릴레오 문화센터, 마드리드; 베로니카 전시장, 무르시아, 스페인;  
 페스카데이라 비에하 아트룸, 헤레스, 스페인
- 1993 하드코어 (파트1), 팩츄얼 년센스, 런던  
 10년의 컬렉팅: 뉴 아트 기프트 후원자 1983-1993, 테이트 갤러리, 런던  
 시야에 들어오다: 근래 영국 회화, 예술위원회 컬렉션, 로열 페스티벌 홀, 런던; 영국 순회전시  
 낸시 헤인즈, 제임스 하이드, 월터 오브 홀저, 피오나 래, 데이비드 로우, 카린 잔더, 후안 유슬레,  
 레슬리 웨인, 존 굿 갤러리, 뉴욕  
 컬러, 파멜라 어킨클로스 갤러리, 뉴욕  
 새로운 목소리들: 영국공영컬렉션 신작, 룩셈부르크 국립 역사 미술 박물관, 룩셈부르크; 이스탄불  
 그레이터 시티 탁심 미술관, 이스탄불, 터키; 앙카라 주립 미술관, 앙카라; 이즈파스 갤러리,  
 이즈미르, 터키
- 1992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놀다, 저먼스 반 에크 갤러리, 뉴욕  
 새로운 목소리들: 영국공영컬렉션 신작, 알베르 보르소 컨퍼런스 센터, 브뤼셀  
 현대미술협회: 80 년간의 컬렉팅, 매클로린 갤러리, 에어, 스코틀랜드, 영국;  
 브리스틀시 박물관과 미술관, 브리스틀, 영국; 워커 미술관, 리버풀, 영국
- 1991 존 무어스 리버풀 전시 17, 워커 미술관, 리버풀, 영국  
 현대미술협회: 80 년간의 컬렉팅,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누가 현대미술 혹은 로저 래빗의 양적인 삶을 포함했나,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 뉴욕  
 1930년 이후의 영국 미술, 워딩턴 갤러리, 뉴욕  
 초대전, 토니 사프라지 갤러리, 뉴욕  
 런던의 뷰, 잘츠부르크 미술협회,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추상, 워딩턴 갤러리, 런던  
 빛의 형이상학, 존 굿 갤러리, 뉴욕  
 터너상 전시회 1991, 테이트 갤러리, 런던
- 1990 브리티시 아트쇼 1990, 맥켈란 갤러리, 글래스고, 영국; 리즈 시립 미술관, 리즈, 영국; 헤이워드  
 갤러리, 런던  
 아페르토: 제44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루돌프 필라, 팀 헤드, 알랭 밀러, 피오나 래, 앤소니 윌슨, 앤서니 레이놀즈 갤러리, 런던  
 준비작업 1, 비테 데 비트 현대미술센터, 로테르담, 네덜란드
- 1989 새로운 일년, 새로운 재능 '89, 앤더슨 오데이 갤러리, 런던  
 약속, 약속, 서펜타인 갤러리, 런던; 님 미술학교, 님, 프랑스

1988 프리즈, 서리도크, 런던

## 소장

영국 예술위원회, 런던  
아스트룹 피어리 현대미술관, 오슬로, 노르웨이  
버밍엄 미술관, 버밍엄, 영국  
영국문화원, 런던  
칼루스트 굴베키안 재단, 리스본  
카리 현대 미술관, 님, 프랑스  
현대미술협회, 런던  
코르크란 미술관, 워싱턴 D.C.  
예술 미술관, 클로스터노이부르, 오스트리아  
국립현대미술기금, 파리  
프랑스 현대미술 지방재단 오베르뉴, 클레르몽페랑, 프랑스  
일드 프랑스 현대미술기금, 프랑스  
배리 재단, 라 코루냐, 스페인  
라카이사 재단, 바르셀로나, 스페인  
정부 미술 컬렉션, 영국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 베를린  
허버트 F. 존슨 미술관, 코넬대학교, 이타카, 뉴욕  
허시훈 박물관 & 조각공원, 스미스소니언 협회, 워싱턴 D.C.  
저우드 컬렉션, 헤이스팅스, 영국  
리즈 미술관, 리즈, 영국  
무담 룩셈부르크 - 그랑 뒤 장 현대 미술관, 룩셈부르크  
로슈슈아르 현대미술관, 로슈슈아르,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파리  
모르스 브로이히성 미술관, 레버쿠젠, 독일  
왕립 미술 아카데미, 런던  
신트라 현대미술관, 포르투갈  
사우샘프턴 시립미술관, 사우샘프턴, 영국  
테이트 컬렉션, 영국  
워커 미술관, 리버풀, 영국  
워릭대학교 아트컬렉션, 코번트리, 영국